

세계화 시대의 대학 내 교육 위기와 해법



윤 신 일
강남대 총장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최고의 정보화를 이룬 우리의 모습은 정보 대란에도 불구하고 대견스럽기까지 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도 산업사회의 틀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해 가고 있다.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의 무한 경쟁에 나서 속속 성공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들의 국제 사회로의 진출도 활발해 국제적인 기구나 모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영향을 줄만큼 상위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학교육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거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각 대학들이 학생을 사회로 배출하는 시기이지만,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실력 있는 학생 또는 준비된 학생이라는 말을 듣기가 힘들다. 자연 신규 채용의 폭이 대폭 줄고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를 선택함으로써 인력 배출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위상을 한층 떨어뜨리고 있다. 대학 내에서조차 교원 초빙에 있어 외국 학위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국내 학위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은 우리 대학교육의 위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과거 최고 지성의 전당으로, 문을 열면 학생들이 몰려오고 또한 산업화의 역군들을 사회에 배출하여 오늘의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졌던 대학의 영광에 비교해 볼 때 대학들이 당면한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처참하다 못해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아래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에 못 미치는가 하면 대학교육 이외의 다양한 전문교육이 등장하고, 취업 대란에 교육의 부실로 인한 유학 이민 현상은 대학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 외에 대학 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판단할 때 학교의 내실 있는 경영이나 연구물, 인재 배출에 의한 평가보다는 대학의 규모나 위치, 수능 성적의 우열, 학교 지명도로 학교를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하다. 이는 대학 스스로 실력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교육 본연의 임무보다는 우수 학생 유치, 졸업생 배출, 이미지 관리 등 외형을 중심으로 한 대학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온전의 성공보다는 절반의

“

우리가 처한 교육 위기의 해법은 결국 교육의 기본 원칙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 강의실이나 실험실에서
위기의 세 주체인 교수와 학생과 대학 당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 원칙에 충실할 때 우리의 교육은 되살아날 것이다.

”

성공인 셈이다. 즉, 교육의 본말이 전도된 데서 위기가 오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 위기는 마치 IMF 경제 위기를 자초했던 기업들이 수익성을 통한 경영 개선보다는 자산 총액, 매출 규모 등 외형에 치중하다 외국발 금융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쓰러진 것과 다를 것이 하나 없다. 산업사회에서 가능했던 소위 일류 대학의 우물 안 명성이 외국 대학과의 실력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상아탑을 자처하는 대학교수들이 자만에 빠져 고립무원에서 사회의 변화를 등한시하고 때로는 거부하며 사회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에 들어온 교수들 중 많은 사람들이 3년 내에 연구력이 급격히 떨어져 밥벌이 교수로 전락한다는 말이 대학 사회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에 되돌려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키고 지식 소비 계층으로 스스로 전락한 것은 대학 위기를 자초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에게 대학 입학 때 미처 갖추지 못했던 실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기에 이 일을 맡은 교수로서 대학 위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 위기의 또 하나의 책임은 대학 구성원의 하나인 학생으로부터 기인한 학내 소요와 향락 문화의 유입에 있다. 사회 참여 욕구와 약자의 권리를 방자한 끊임없는 학내 소요,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대학이라는 큰 울타리를 활용하는 학생들로부터 대학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 품질관리의 위기와 아울러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심, 적당히 타협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대학의 합작품이 만들어 낸 대학 문화가 대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 아래 무책임하게 벌이는 각종 행태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관용을 베푸는 원칙 없는 행정이 대학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실력 배양의 목표가 실종되고 준비되지 못한 사회인을 배출한 결과가 결국 오늘날 대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대학의 위기는 대학 당국의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의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전문성 면에서 사회를 능가하지 못하고 미래 변화도 예측하지 못하며 오히려 변화를 쫓아감으로써 대학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우리가 처한 교육 위기의 해법은 결국 교육의 기본 원칙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 강의실이나 실험실에서 위기의 세 주체인 교수와 학생과 대학 당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공통의 목표와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로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세우고, 서로 인정할 때 대학의 위기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고, 대학 당국은 지배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본 원칙에 충실할 때 우리의 교육은 되살아날 것이다. 